

서산의 옛사진





서산의
여섯사건

서산의 옛사진집을 발간하며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사진은 짧은 순간의 포착으로 영원하고도 진귀한 역사적, 문화적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추억과 감동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귀중한 자료로 새롭게 탄생하는 환희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산의 옛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시대적 상황, 유구한 역사와 발자취가 영원히 기록 보존되길 희망하면서 비록 작지만 크게 쓰일 자료집을 만들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진은 바로 역사이고 기록이며 곧 문화이기에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솔직하게 증언을 해주는 언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대문화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옛것이 더 많이 발굴되고 또한 발굴된 자료들에 의한 무한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서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이 수없이 많이 발굴되어 왔으며 그 가치 또한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의 노력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면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출품해 주신 이 작은 사진첩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내는 초석이 되리라 봅니다. 모쪼록 본 사진첩이 필요로 하는 관계자 모두에게 큰일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사진을 출품해주신 모든 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12 8

「서산의 옛사진」 발간을 축하합니다

서산시 역사와 서산시민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서산의 옛사진’ 발간을 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진을 흔히 ‘순간의 예술이자 영원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찰나의 순간을 촬영하지만 그 가치는 오래도록 영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 하나 하나를 보면서 어느새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짐을 느꼈습니다.

빛바랜 흑백사진 속에서 잠시 잊고 살았던 어릴 적 동심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년여의 힘든 준비과정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준호 서산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의 옛사진’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자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전통과 풍습을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로써 서산시 역사·문화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만 5000여 서산시민의 자랑스러운 자랑이자 삶의 쉼표가 될 ‘서산의 옛사진’ 발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장
이완섭

2012 8

옛 정취를 느끼는 사진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서산시의회의장
이 철 수

서산의 옛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서산의 옛사진』 발간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향토문화 발굴과 계승발전에 많은 업적을 일구시며, 서산시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자료 수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준호 서산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이 간직해 오시던 귀중한 사진을 출품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른 변화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또한 이제는 주위에서 옛 것을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나마 오래된 사진에서 과거의 풍경과 생활상 등의 옛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서산의 옛사진』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매우 다양한 지난날의 생활상과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서산시의 지나간 역사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써 가치있게 많이 활용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산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소중한 옛 것을 발굴하고 지켜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서산의 옛사진』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귀중한 역사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도시 『서산의 옛사진』 작품집이 나오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중한 『서산의 옛사진』 작품집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서산문화원 이준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서산교육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작품집에 등재된 수상자 분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를 보냅니다.

80년대 이전의 서산의 옛모습을 발견하여 시민들의 지역정서를 공유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 귀중한 역사자료 확보 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작품집 속의 사진들은 학생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서산의 옛사진』 작품집이 나오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상한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면서 축사로 가름합니다.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유 병 권

2012 8

학교

지금은 어른이 되어버린 사진 속 주인공들...
오늘날은 보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보편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유치원이나 학교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드물었고 특히 여성은 더욱더 그러했다.

대상 | 이정희 _ 서산시 동문동



1937. 1. 22. 서산유치원 개원기념 큰 고모의 유치원 사진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복에서 일제강점기의 혼란스러웠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당시 서산유치원은 현재 서산
초등학교뒤 감리교회의 부설유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정희 _ 서산시 동문동



1949. 둘째 고모의 서산 천사유치원 3회 졸업기념 사진

선교사들의 모습과 학사모를 쓴 학생들의 모습이 제법 의젓하다.
미처 졸업사진을 찍지 못한 아이들은 따로 모여 찍은 후 덧붙인 듯 하다.



연도 미상. 서산공립보통학교(현. 서산초등학교)



1941. 수석동 공회당

일제강점기 시절, 공회당에 수석리 1, 2, 3통 학생들이 모여 교육 후 기념촬영을 했다. 공회당은 지금의 마을 회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1944. 해미면 휴암리. 보리 베는 학생들

해미면 휴암리 보리베기 노력동원에 나온 초등학생들이다. 불볕 더위에 옷을 벗고 알몸으로 작업하고 있다. 나라 잃은 시대의 아픔을 보여준다. 일본은 학병제를 시행해 전국 학생들을 수업보다는 징집과 노력동원에 내몰았다.



1949. 서산여자중학교 흥기표 여학생 최초 여군입대 입영사진

사진 건물은 당시 서산여중의 교사이며 대한민국 만세(大韓民國 萬歲), 축 입영 흥기표(祝 入營 洪起杓)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앞줄에서 왼쪽 일곱 번째 어깨띠를 두른 사람이 주인공 흥기표 학생이며 당시 중학생이지만 나이가 19살쯤이었다. 당시 여군을 모집했는데 서산에서 최초로 입영하게 되었다.



1953. 음암초등학교 21회 졸업생
졸업식을 위해 두루마기와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 입었다. 지금은 모두 80노인들이 되었으니...



1949. 서산여자중학교 학생 기념촬영
지금은 볼 수 없는 옛날 서산여중의
건물 모습과 교복입은 옛된 여학생들의
모습이 보인다.

우수상 | 김종옥 _ 서산시 죽성동



1949. 서산여자중학교 기숙사 앞
기숙사 입사생들이다. 교복과 치마저고리 차림이 섞인 모습이다. 뒤에 보이는 기숙사 건물은 후에 관사로도 쓰였다.

입선 | 이은지 _ 서산시 석림동



1948. 부석초등학교(부석면 대도리)
부석초등학교 앞에서 할머니의 초등학교 졸업기념 사진



1951. 서산중학교 2기 졸업식 기념사진
할아버지의 중학교 시절이다. 남자답게 팔장도 멋지게 껴다.



1963. 천사유치원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날 기념으로 어머니와 친구들이 함께 단체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지금과는 색다른 모습이다.



1968~1969 추정. 서산군 팔봉면 어송리 3구 청포탁아소

1970년대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로 떠나고 농업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시대였다. 농촌에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없던 때라 농촌지도기관을 통하여 각 마을에 새마을 탁아소를 설치하고 마을마다 어린이를 돌보게 하였다. 고유번호 1399번 청포탁아소로 농촌지도사와 부모가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치고 있다.



1970. 서령초등학교 교정에서 친구와 함께

지금은 다양한 휴식공간과 레저문화, 관광자원이 많지만 옛날엔 유일한 휴식처가 옥녀봉이었다. 친구, 가족과 함께..그리고 친목회 모임까지.. 일제강점기 시절엔 울창한 숲이 보이지만 50-60년대엔 나무를 베어 민둥산의 모습이다.

서산시민들의 휴식처

옥녀봉

입선 | 김현구 _ 서산시 읍내동



부춘산(옥녀봉)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엽서에 실린 옥녀봉이다. 지금과 달리 나무가 울창한 모습이다.

입선 | 안명례 _ 서산시 석림동



1957. 옥녀봉

'서령양재학원'의 원생들이 예쁜 포즈를 잡았다.
양재학원 : 양복을 재단하거나 재봉하는 일을 배우던 곳

최경용 _ 서산시 읍내동



1959. 옥녀봉

친구와 함께 옥녀봉에 올랐다. 당시는 나무가 없는 허허벌판이다. 뒤로 시가지와 저 멀리 천수만 바다도 보인다.

김남식 _ 서산시 동문동



1958. 옥녀봉 가는 길

친구들과 옥녀봉 올라가는 길에 한껏 품을 잡았다. 배경으로 당시 흔히 살았던 초가집이 보인다.



1958. 옥녀봉에서 내려오는 길
포장이 안돼 비가 오면 질퍽해지는 흙길이다



1968. 옥녀봉
6살 어린 나이에 옥녀봉에 올라 못내 쑥스러운 모습이다.

입선 | 정소영 _ 서산시 온석동



1973. 옥녀봉

초등학교 4학년 때 옥녀봉으로 소풍을 갔다. 은사님과 친구들이 있는 소중한 기억의 조각이다

입선 | 문석희 _ 서산시 죽성동



1975. 5. 옥녀봉. 동부시장 상인 야유회

동부시장 상인들의 봄 야유회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뒤로 조금씩 심어진 나무들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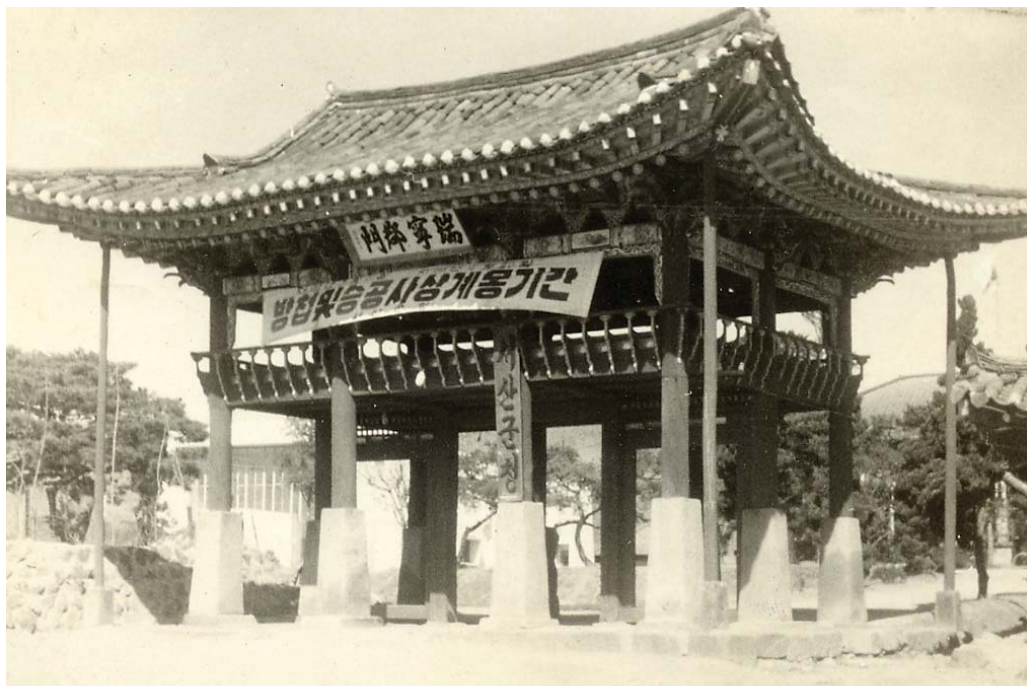
서령관아문은 서산의 상징이자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산시청(군청) 앞의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그런지 공직자들의 기념촬영 장소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주는 슬로건이 눈에 띈다.

최병부 _ 서산시 죽성동



서령군문. 조선총독부 제작 엽서

박홍식 _ 서산시 읍내동



1967. 서산군청 앞 서령관아문

서산군청의 간판과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방첩 및 승공사상계몽기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1960년대. 서령관아문
 “새롭게 바꾸자”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서산군청(현재 시청이다).



편세환 _ 서산시 음암면
 1965. 9. 18. 김보성 군수 송별기념

류남혁 _ 서산시 동문동



1968. 2. 8.
 이관현 내무과장 송별기념

서산시청(군청) 앞은 시내의 중심으로 여러 기념비와 경찰서, 의료원 등 각종 관공서가 위치해 있었다.

장려상 | 강영미 _ 서산시 읍내동



1954. 서산읍사무소(구. 서산문화원). 박읍장 취임 기념사진

서산시·군이 분리되면서 서산읍사무소가 없어지고 서산문화원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입선 | 주영민 _ 서산시 동문동



1973. 1. 21. 서산군청 앞(지금의 시청)
친구들과 군청 앞에서 찰칵



주영민 _ 서산시 동문동

1973. 군청 앞 보호수
지금도 시청 앞엔 보호수가 그대로
서 있다.

입선 | 김진영 _ 서산시 동문동



1964. 10. 1. 서산군청 앞. 서산군 자치제 실시 제3주년 기념
각 면의 면장들과 군수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지금의 시청 전 군청시절의 모습



1960. 11. 서산군청 앞. 추모비를 세우고
당시 <광산석물공장>을 운영하시던 할아버지가 독립지사비를 세우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복순 _ 서산시 예천동



1974. 서산군청 경찰서 앞
지금은 없어진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직장동료들과 기념촬영

장려상 | 김남식 _ 서산시 동문동



1950년대. 광장 연못

지금의 1호광장 분수대 자리이다. 당시엔 분수대는 없고 연못에 커다란 연꽃이 피었다 심지어 붕어도 살았으며 연못 옆엔 정자가 있었다. 지금은 없어진 서령팔경중 하나인 「연당세우(蓮塘細雨)」의 모습이다. 연당세우(蓮塘細雨) - 연꽃 못에 내리는 보슬비란 뜻이다.

김남식 _ 서산시 동문동



1958. 광장

겨울철 연못, 아직 연꽃이 피기 전 황량한 모습이다.



1959. 옥녀봉 단군전
옥녀봉 단군전 초창기의 모습이다.



1970. 옥녀봉 단군전
70년대 당시 단군전 앞에서 남자아이들이 경례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태호 _ 서산시 예전동



1960년대 중반. 옥녀봉 옥천암
할아버지가 옥천암에 처음으로 부처님을 세우고 주지스님과 기념사진

조철호 _ 서산시 읍내동



1968. 서령관
서령관에서 근무 중에 직원들과 함께(서령관에 재무과가 있었음)
현재 시 청사 뒤편에 있었다.

동문동 천주교회와 서산제일교회는 세월이 지나고 건물은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회

노용호 _ 서산시 석림동



1958. 동문동 천주교회

현재에도 운영중인 동문동 천주교 성당에서 찍은 기념 사진이다.

노경하 _ 서산시 석림동



1956. 4. 1. 동문동 천주교회

어릴적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찍은 사진이다. 결혼 후 시댁에서 같은 사진을 발견했다.
남편도 당시 영세를 받았다고. 인연이란 이런 것?!

이은지 _ 서산시 석림동



1972. 9. 26. 동문동 천주교회
천주교회 앞에서 영세기념으로 찍은 단체 사진이다.

주영민 _ 서산시 동문동



1971. 서산제일감리교회
교회 성경학교를 맞아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즐겁게 놀고 있다.



1972. 7. 13. 서산제일감리교회
교회의 높은 탑을 배경으로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찍었다.

오랜 세월 일제 강점기, 전쟁, 산업화를 거치면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준 소중한 문화재들.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자산이다.

문화재

김남식 _ 서산시 동문동



1950년대. 해미읍성 진남문 앞

친구와 함께 해미읍성에서. 당시 해미읍성 안에는 실제 민가가 살았고, 진남문 앞엔 각종 게시판과 상점, 민가들이 늘어서 있었다.

입선 | 송수지 _ 서산시 읍내동



1965. 개심사

개심사에서 4H 회원들과 आयु회를 가졌다.



류남혁 _ 서산시 동문동

1968~1969. 동문동 오층석탑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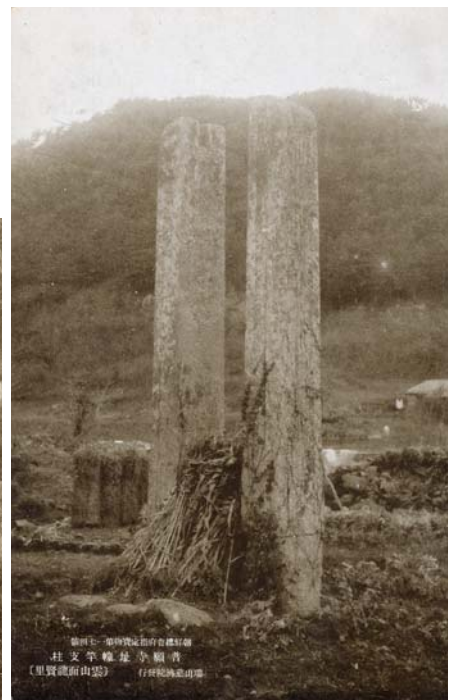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96호인 동문동 5층 석탑 앞에서 증조할머니와 동네분들이 찍은 사진이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이다. 당시에 도 지급 처럼 3층만 남은 모습이다.

김현구 _ 서산시 읍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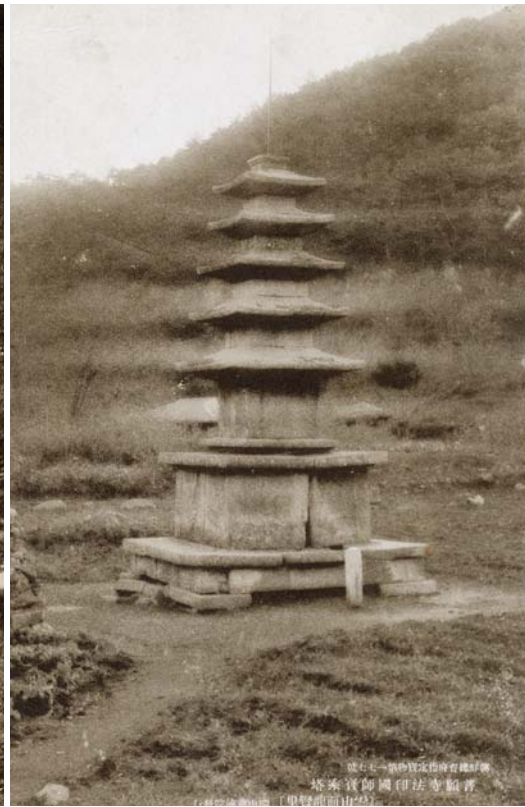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의 문화재와 명소를 배경으로 엽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서산의 문화재 위로 "조선총독부"란 이름과 일본에서 지정한 번호가 선명히 새겨져 있다. 그 당시 제대로 보존·관리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국권을 잃어버린 쓸쓸함을 간직한 듯하다.



보원사지 석좌(보물 제102호)



보원사지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보원사지 법안국사보승탑(보물 제105호)과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서로 이름이 바뀌어 제작되었다.



부석사(충남문화재자료 제195호)



개심사 대웅전(보물 제1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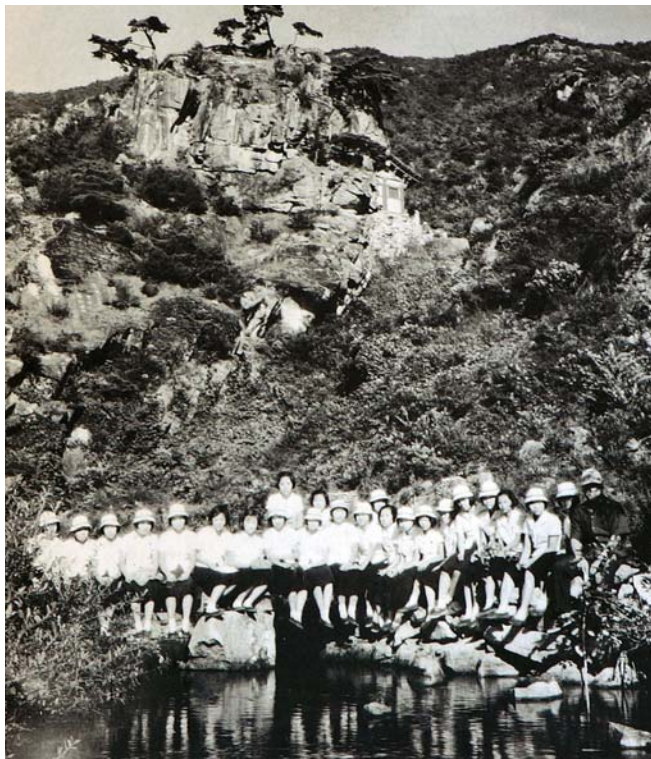


보원사지 법안국사보승탑(보물 제106호)



1961~1962. 보원사지 오층석탑

해체 복원전 모습으로 전각이 모두 살아 있다 당시 국어 선생님과 함께 보러갔다. 가을이라 콩, 수수 등이 심어져 어느 밭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조한길 _ 서산시 음암면

1966. 마애삼존불상 앞에서

국보 보존을 위하여 지붕을 설치하였으나 결로현상과 이끼 발생 및 마애삼존불의 자연적인 미소를 볼 수 없다 하여 2007년 지붕을 해체했다. 바위자락에 지붕해체 전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다.

전인철 _ 서산시 인지면



1973. 부석사

초등학교 4학년 봄소풍을 부석면 소재 부석사로 놀러갔다. 반 친구들과 함께 부석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김영수 _ 서산시 석남동



1950년대(6. 25후) 망운대(현재 세무소 가는 길)

서산여중 시절 친구와 함께 망운대에 놀러가는 길이다. 서산여중의 건너편으로 당시 망운대로 불리는 비가 세워져 있었다.

망운대 : 중국 송나라에서 망명한 원외랑 정신보가 망향의 정을 달래기 위해 세워 놓은 비. 정신보는 고려 충신 열 일곱명 중 열 두번째로 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전통 혼례

지금은 예식장과 멋진 홀에서 서양식의 하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지만
30년 전만 해도 전통 혼례복을 입고 집에서 혼례를 치루었다.
가족의 경사이자 동네의 큰 잔치로서 마을 사람이 함께 축복하는 자리였다.



김진영 _ 서산시 동문동

1935. 동문동 당터배기. 결혼기념 사진
곳은 날씨 탓에 신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
나무 판자를 깔고 그 위에 서서 촬영했다고
한다.



입선 | 김혜자 _ 서산시 석림동

1963. 첫사랑의 결실
부모님의 결혼 사진

임신웅 _ 서산시 인지면



1963 인지면. 나의 결혼식
전통 결혼식 후 시부모님과 함께

이태호 _ 서산시 예천동



1954. 옥녀봉 포교당
어머니가 23살 때 현재 단군전 자리에
있던 포교당에서 주지스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1970. 11. 해미면 반양리. 아버지의 결혼식

당시는 장님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동네의 큰 잔치였던 결혼식. 수줍은 신랑, 신부의 풋풋함이 느껴진다.



1968. 자곡면 환성리(노룡고지). 장가는 날

없는 살림이지만 신혼집이라고 장롱도 들어오고 동네가 잔치집 분위기다. 이렇게 시골집이 부산할 때도 드물다. 신랑과 신부 일행이 논둑길을 가로질러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가자, 뒤에 꼬마들은 무슨 구경이나 낚는지 신이 나서 쫓아온다. 동네꾼들도 혼사집 구경가느라 길을 나서고 있다.

안명례 _ 서산시 석림동



1960. 석림동. 당시 '무석'이라 불리던 곳
현재 서산여고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곳이다. 결혼식 후 기념촬영

문석희 _ 서산시 죽성동



1962. 10. 26. 운산면 용장리 해다리 옆
부모님의 결혼사진. 뒤에 보이는 초가집이 신혼집이다.

평균 수명이 길지 않던 시절, 환갑잔치는 가족의 큰 기쁨이자 축하할 일이었다.

입선 | 이문희 _ 서산시 인지면



1962. 10. 12. 인지면 차리
증조할아버지의 환갑기념 가족사진

김혜자 _ 서산시 석림동



1968. 7. 20. 성연면
할머니의 환갑잔치 가족사진

입선 | 김연수 _ 서산시 읍내동



1920년 전후 추정. 현 축협 건너편에 위치한 집
천주교 신자였던 고조할아버지의 칠순 잔치 기념사진이다. 옆에 신부님이 계시다.

임신웅 _ 서산시 인지면



1975. 12. 23. 인지면 산동리
부모님의 회갑연 가족 기념사진

상례

상례원이 보편화 되기 전,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일이었다.

입선 | 안상호 _ 서산시 석남동



1975. 성연면 갈현리

부친상 때 재래식 상여이다. 어머니와의 묘 합장으로 쌍상여가 나가고 기독교식으로 식을 진행한 점이 특이하다.

이태호 _ 서산시 예천동



1971. 2. 동문동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상여가 나가는 모습. 만장행렬이 당시 운영했던 광산석물공장에서 장자인 당진문 천의면까지 이어졌던 모습이다.

김연수 _ 서산시 읍내동



1960년 전후. 서산 시내 할아버지의 장례 풍경
당시 상여와, 상주들, 만장 행렬들의 모습이다.



입선 | 이내윤 _ 서산시 운산면



1975. 운산면 와우리. 아버님 장례식

1960년대는 전쟁직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증산 운동과 반공교육이 활발하던 시절이다.
 1970년대를 상징하는 새마을운동은 처음엔 농촌개발사업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국민적 근대화 운동이 되었다.
 서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농촌마을에서 도시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해방 후 서산의 정치·사회

장려상 | 임신웅 _ 서산시 인지면



1967. 3. 서산군 농촌지도소
 4-H 회장들과 지도자들이 제11회 경진대회 참가 기념촬영

입선 | 최병부 _ 서산시 죽성동



1966. 서산군 애축의 날
 "사료를 증산하자." "가축을 사랑하자"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

최병부 _ 서산시 죽성동



1966. 서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공강연 중이다.

최병부 _ 서산시 죽성동



1966. 서산군 이동공보반 차량, 이동영사기 차량

김진영 _ 서산시 동문동



1970. 대한염업주식회사 서산지사 앞
(현 죽성동 삼성아파트 자리)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 "반공, 방첩"이란
표지판이 선명하다.

입선 | 김진영 _ 서산시 동문동



1964. 10. 6. 팔봉 빛나는 마을 입구
팔봉 빛나는 마을 지정식이 있던 날. 팔봉면장 이장, 도지사가 모두 모였다.

박흥식 _ 서산시 읍내동



1969. 지곡면 화천리. 여성상회(지붕개량사업 모습)
새마을운동의 시작으로 지붕개량사업이 시작하면서 지곡면에 처음으로 정착형 만물가게가 들어서는 모습이다.

안명례 _ 서산시 석림동



1972. 당시 석림리 508번지. 대림기업사

당시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벽돌을 만드는 공장이었던 대림기업사는 급발전했다.



1970. 대림기업사

직원이 벽돌에 물을 주고 있다. 5~7일간 벽돌이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1973. 서산 읍내리. 새마을 공장-서산농가공산업사

"나라는 100억불 우리는 1000억불"이라는 당시 외화획득 슬로건이 보인다. 당시 김윤환 충남지사가 방문하여 직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입선 | 김한국 _ 태안읍 남문리



1972. 태안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벽보
(서산지역구)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
된 기관이자 국민적 조직체이다

김한국 _ 태안읍 남문리



1970년대. 통일주체대의원회 서산지구 지역회의
장소 : 서산천도교 본부



서산시청에서 유신제 1차년도 표창모습



1970년대 음암면 상흥리 새마을사업(교량건설)

음암면 상흥리 마을의 사진과 역사를 담아 펴낸 『홍천향사』에 수록된 사진이다.

이내윤 _ 서산시 운산면



1970년도. 운산면 와우리 2구
마을에 탈곡기가 처음 생기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탈곡 하는 모습이다.

입선 | 서두석 _ 서산시 음암면



1983. 음암면 탑곡리
한해대책 소구경관정

간척사업과 새마을 운동, 도시개발로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는 풍경들이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때 그 시절이 그리기도 하다.

서산의 지도가 바뀐다

김남식 _ 서산시 동문동



1950년대. 지금은 없어진 활성지역으로 추정된다.

임신웅 _ 서산시 인지면



1974. 6. 인지면 산동리

AB방조제 축조전 천수만 바다의 모습이 보인다. 가족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1977. 석남동 방죽. (현재 호수공원)

소위 “똥방죽” 이라 불렸던 석남동 방죽에서 외할머니가 쉬고 계시다.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멋진 호수공원으로 변신해서 서산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지만 당시 비온 후 물이 가득차서 집까지 물이 올라온 모습이다.



1977. 석남동 방죽

석남동 방죽길에 뛰어놀던 주인공이다.



1969년. 양대동. 대림기업사 직원 야유회
당시 양대리 바다라고 불렀다. 그때 까지만 해도 양대동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1960년대 초. 양대리 득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양대리 염전 근처로 소풍을 갔다. 뒤로 염전과 퇴비산이 보인다.

임신웅 _ 서산시 인지면



1962. 양대리 제방.

당시 인지면 산동리 집과 서산농림고의 거리는 약 10여km, 당시 염전을 만들기 위해 쌓았던 제방 위를 걸어서 통학했다. 그 체력으로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박만진 _ 서산시 동문동



1934. 윤곤강 시인과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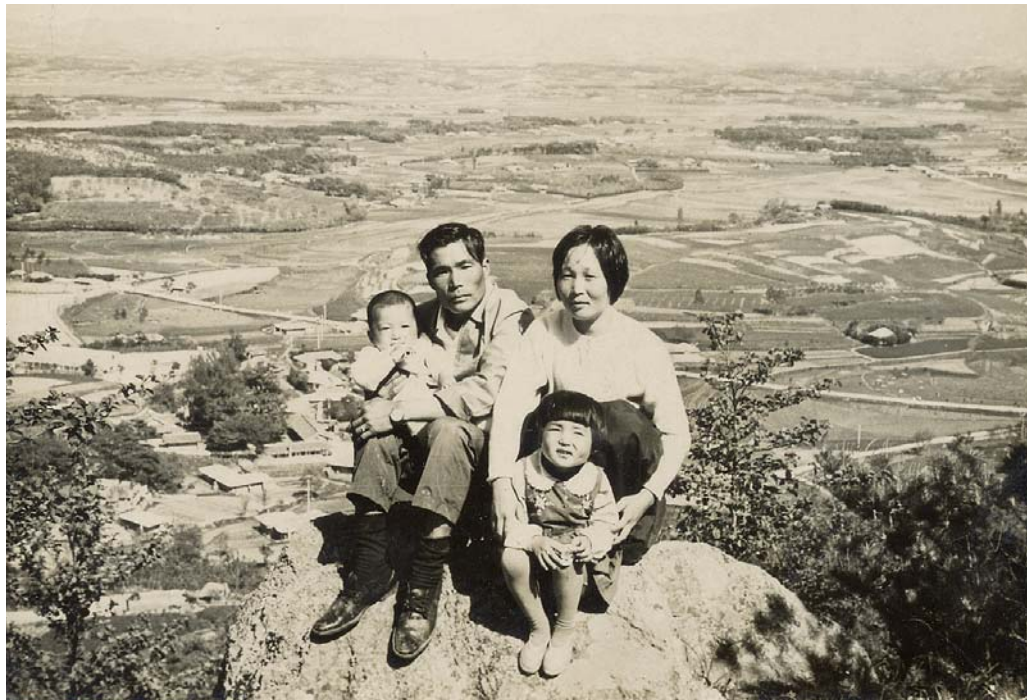
서산이 낳은 대표적인 현대시인 윤곤강. 나무에 기대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윤곤강이다. 당시 양유정은 버드나무가 많고 정자가 있어 그리 불렀다. 1970년대까지도 냇가가 흐르고 도심속 휴식공간이자 집회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복개공사로 규모도 작아지고 옛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입선 | 한영미 _ 서산시 석남동



1975. 5. 양유정 냇가

이른봄, 양유정 냇가 복개공사 하기 전 징검다리에서 뽀롱뽀롱한 표정으로 서 있다



1969. 읍내동 우름산(명월바위)
우름산 정상에 올라 서산을 배경으로 가족사진 뒤로 논과 밭이 펼쳐져있다



1992. 읍내동 부영아파트 구획정리전 전경
지금은 읍내동이 문화회관 수 많은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섰지만 이때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 남아 있다

터미널 시장풍경

터미널의 위치는 시대에 따라 바뀌었지만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은 그대로이다.

최우수상 | 박홍식 _ 서산시 읍내동



1969. 서산 구터미널 부근

예나 지금이나 터미널 앞은 항상 붐빈다. 이른바 “차부”라고 불리던 시절 차부 앞 “차부쌔집”의 간판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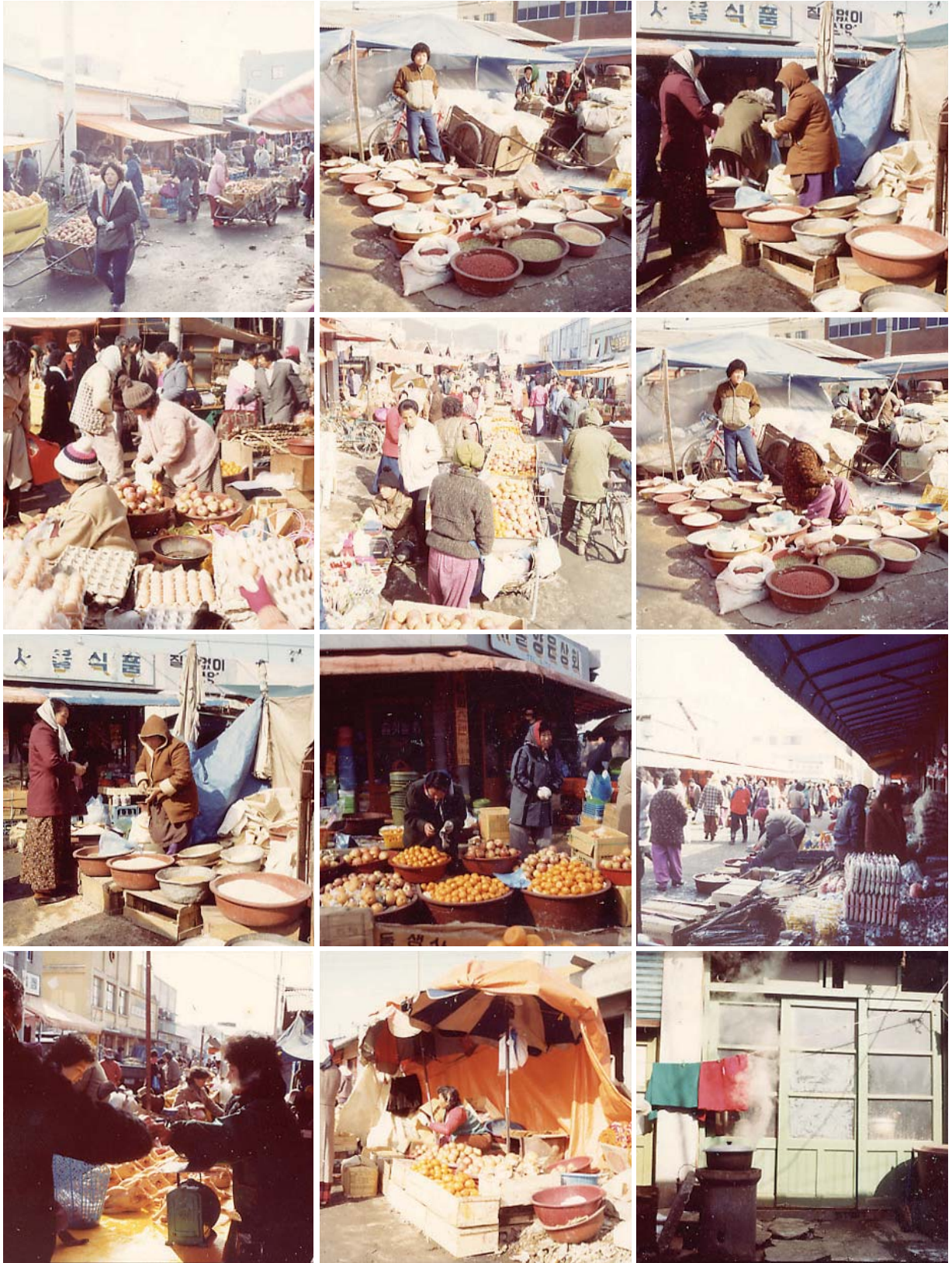
조한길 _ 서산시 음암면



1969. 충남 교통 운수주식회사 서산출장소

당시 버스터미널모습이 서산농림고등학교 앨범에 남아 있다. 서산-음암간 버스비가 겨우 5원이던 시절이다.

1983년 7월경 서산축협이 이 곳을 인수했다.



1983. 서산 동부시장내. 장날

서산 동부시장의 장날을 맞아 시장풍경을 스케치한 사진이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던 시절, 방학때 내려와 서산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우수상 | 최경용 _ 서산시 읍내동



1959. 서산미용학원

당시 여성들은 미용, 양재, 편물 등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서산미용학원에서 머리하는 미용기술을 배우는 모습인데, 당시 화로불에 고데를 지져서 머리를 하고 있다. 다치지 않았을까?

최경용 _ 서산시 읍내동



1960. 서산편물학원

당시 여성들은 미용, 양재 등의 기술을 익혔다.



1970년대 초. 지곡면 도성리. 나룻배
당시 섬으로 나룻배를 타고 가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다 나룻배엔 더 이상 앉을 자리 없이 빼곡하다.



1970년대 초. 지곡면 도성리. 나룻배
섬으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다.

경현기 _ 서산시 동문동



1970년대 초 서산
서산에 택시가 처음 들어와 시승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얼마나 설레일까?

입선 | 김복순 _ 서산시 예천동



1978. 서부상가 서령택시 발대식
자극이 많지 않던 시절, 포니 택시가 넘쳐서 있다.



1955. 서산농림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의 군사훈련 모습이다.



1979. 서산농업고등학교
서산농고 학도호국단 학생들이 훈련하는 모습이다.

안상호 _ 서산시 석남동



1974.9. 성연면 평리. 내고향 물레방아(현재 성연면 평리 김치공장 근처)
미국 사촌이 방문하여 기념촬영을 했다. 뒤로 지금은 없어진 물레방아가 사진에 남아 있다.

박흥식 _ 서산시 읍내동



1970년대 초 지곡면 화천리 '전화교환원'
전화가 처음 개통되고 여성들에게 인기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전화교환원이었다.
교환업무를 했던 교환원 사이에 아기가 하품을 하고 있다.



1969. 지곡면 환성리. 누에틀 짜기

농사외로 큰 수입원이었던 누에치기를 위해 누에틀을 짜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당시 환성리에는 뽕나무가 많이 심어졌다.



1960년대 말. 지곡면 화천2리. 혼사집 가는길

시골에서는 마땅한 운송수단이 없어 건너 마을 혼사집에 갈 때 경운기가 유용하게 쓰이곤 했다.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아주머니들이 경운기에 올라타 있다.

박흥식 _ 서산시 읍내동



1970. 지곡면 도성리 마을 니들이

동네사람들이 마을 니들이라도 하게 되면 지금의 관광버스 대신 트럭을 많이 이용했다. 어디를 가는지 즐겁게 보인다.

박흥식 _ 서산시 읍내동



1965. 대산읍 곰섬(웅도). 참

시골처녀들이 곰섬으로 해루질을 가서 양푼이에 참을 먹고 있다. 밝게 웃는 모습이 무엇이 좋은지 고된 일에도 환하게 웃는다.



1960년대 초. 지곡면 우도(쇠섬). 실치뜨기
용기종기모어 앉아 잡아온 실치를 짚판에 얹으며 뜨고 있다.



1975. 지곡면 화천1리. 아버지의 길
짐자전거에 하나 가득 봇짐을 싣고 수십리 길을 걸어 저짓거리를 나가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열심히 돈을 벌어 자식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만 같다.

이태호 _ 서산시 예전동



1962. 제주시 차량

자동차가 흔치 않던 시절 아버지가 차 사업을 하면서 찍은 사진
안면도 장에 물건을 싣고 가려고 준비중이다. 당시엔 지금의 GM차를 「제무시」라 불렀다.

송수지 _ 서산시 읍내동



1970. 5. 12. 대산

대산 시내에서 자전거로 집을 나르는 중이다. 당시 자전거는 서민들의 유용한 교통수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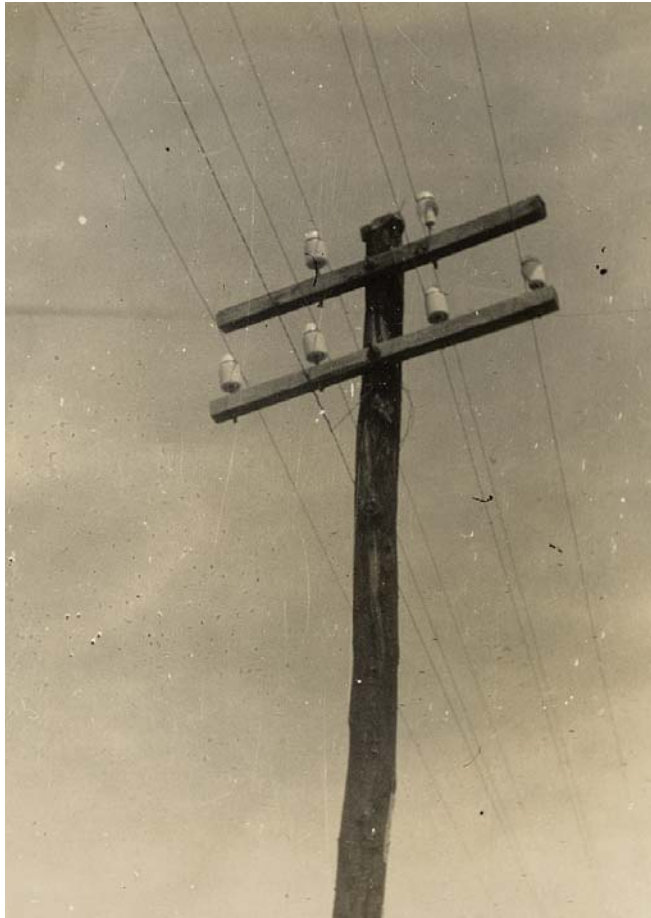
1970년대. 풍전저수지

아버지의 중학교 시절 풍전 저수지로 놀러간 소풍에서 장가짜랑도 하고 팔씨름 대회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1969(추정). 팔봉면 금학리. 상견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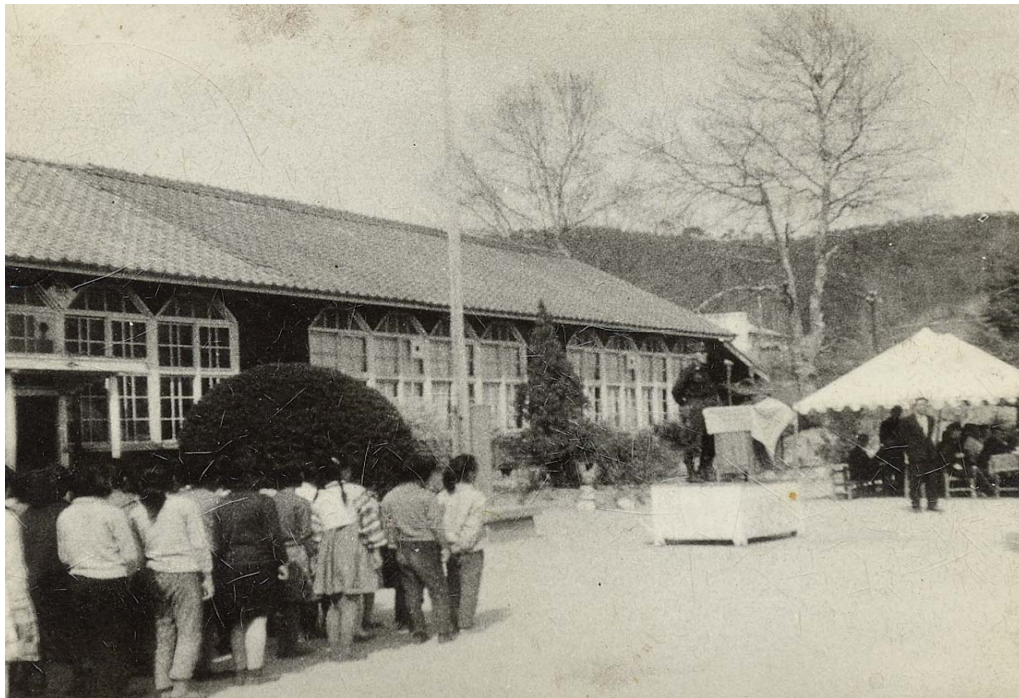
멋들어진 한정식 식당도, 호텔도 아니지만 집에서 정성들여 차려 손님을 맞이했다. 어색하지만 설레는 상견례 자리이다



입선 | 정흥영 _ 서산시 음암면

1960년대. 자곡면 화천리(무내)
동네에 들어왔던 최초의 전신주.
당시는 경외감으로 사진에 담아냈다

정흥영 _ 서산시 음암면



1970년대. 부성초등학교(자곡면)
운동회 전 훈화하는 모습이다. 빨리 끝났으면~~



1970년대. 부성초등학교(지곡면)

운동회 준비중이다. 체육복을 입고 나란히 줄을 서서 신나는 운동회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준비, 텀

입선 | 정현희 _ 태안을 성안2길



1960년대 초반. 서산 구 전화국 근처
어릴 적 친구들이 어느새 성장하여 군대
도 갔다. 함께 휴가 나와서 기념사진!
사진 속 청년들은 현재 70대 노인이
되어서도 그 우정을 함께 하고 있다.

입선 | 김소라 _ 서산시 석림동



1974. 간월도. 뱃놀이

부석 위원장들과 간월도에 일이 있어 갔다가 뱃놀이를 하려고 여유롭게 자리를 잡는 중이다.

이내운 _ 서산시 운산면



1967. 운산면 와우리. 손주, 손녀들과

시골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여운 손주들을 안고 있다. 시대와 변함없이 내리사랑은 영원한 듯 하다.



1965. 서산군의용소방대 앨범

당시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신하여 마을의 굵은 일을 맡아했던 의용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 앨범이다. 대원들의 사진과 훈련모습, 단합대회, 소방차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69. 서산군청 발간. “약진하는 서산”

서산군 시절 군청 문화공보실에서 관내기관, 단체, 시장을 촬영한 사진첩이다. 당시 공무원들과 주요 기관장, 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약진하는 서산”이란 제목처럼 우리 서산은 어느새 16만 시민이 살고 있는 내포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살기 좋고 발전하는 서산을 기대해 본다.

서산 옛사진 공모전 수상결과

대상	이정희	서산시 동문동			
최우수상	박홍식	서산시 읍내동			
우수상	김종옥	서산시 죽성동			
	경현기	서산시 동문동			
	최경용	서산시 읍내동			
장려상	임신웅	서산시 인지면			
	강영미	서산시 읍내동			
	전인철	서산시 인지면			
	김남식	서산시 동문동			
	간예솔	서산시 석림동			
입선	편세환	서산시 음암면	입선	문석희	서산시 죽성동
	서두석	서산시 음암면		김연수	서산시 읍내동
	양영덕	서산시 인지면		류태위	서산시 읍내동
	김혜자	서산시 석림동		김소정	서산시 갈산동
	안상호	서산시 석남동		장경식	서산시 동문동
	안명례	서산시 석림동		최병부	서산시 죽성동
	주영민	서산시 동문동		노경하	서산시 석림동
	김복순	서산시 예천동		정소영	서산시 온석동
	류남혁	서산시 동문동		김정희	서산시 석림동
	김한국	태안읍 남문리		정동욱	서산시 음암면
	한영미	서산시 석남동		이태호	서산시 예천동
	조한길	서산시 음암면		정흥영	서산시 음암면
	노용호	서산시 석림동		정명재	서산시 해미면
	유미나	서산시 죽성동		서회원	서산시 동문동
	송수지	서산시 읍내동		정현희	태안읍 성안2길
	조능호	당진시 채운동		권순생	서산시 읍내동
	김익권	서산시 읍내동		김소라	서산시 석림동
	이은지	서산시 석림동		김진영	서산시 동문동
	이문희	서산시 인지면		이내윤	서산시 운산면
	김현구	서산시 읍내동		김영수	서산시 석남동

* 수상자와 출품자의 사진 중 일부를 책자에 수록함.

서산의 이웃사진

발행일 | 2012년 8월 3일

발행인 |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발행처 | 서산문화원

충남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읍내동 516)

041-669-5050

- 본 책자는 서산시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책자의 저작권은 서산문화원에 있으며 책자에 수록된 자료의 무단 사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